

2012 이슈페이퍼 《 연구보고서 2012-16



2012 ISSUE PAPER

귀농 · 귀촌여성의 농촌 정착 및 사회참여 현황과 정책과제


수행과제명 | 귀농 · 귀촌여성의 농촌 정착 및 사회참여 지원방안


과제책임자 | 박성정 선임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귀농·귀촌여성의 농촌 정착 및 사회참여 현황과 정책과제

수행과제명  귀농·귀촌여성의 농촌 정착 및 사회참여 지원방안

과제책임자  박 성 정 선임연구위원

 Tel: 02-3156-7124

 e-mail: sjpark@kwdimail.re.kr

요약

귀농·귀촌가구의 증가와 함께 귀농·귀촌여성도 증가하고 있으나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지 못하고 있고 정책적 지원도 미비함. 귀농·귀촌여성들이 성공적으로 농촌에 정착하고, 새로운 인적자원으로서 농촌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이 요구됨.

1 배경 및 문제점

현재 농촌은 농가인구의 감소, 인구구조 고령화, 여성결혼이민자 증가, 귀농·귀촌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구조 변화로 큰 변화를 맞고 있음. 귀농·귀촌인구는 2008년까지 2,000가구 이하 수준에서 2009년 이후 연 4,000가구를 웃돌고 2011년 10,000가구 이상에 달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귀농·귀촌여성 역시 농촌의 새로운 인적자원으로 부상

하고 있음. 특히, 향후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와 함께 귀농·귀촌여성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수한 인적자본을 갖춘 귀농·귀촌여성들의 농촌사회 참여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추세와 함께 최근 귀농·귀촌자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매우 커지고 있으나, 거의 남성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주를 이루고 여성에 대한 관심은 매우 취약함. 가구단위로만 실태를 조사하다보니 귀농·귀촌여성에 대한 통계나 현황조차 파악되어 있지 않음. 농림수산물식품부가 수립한 ‘귀농·귀촌종합대책’은 귀농·귀촌여성들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함. 이러한 남성중심적 대책만으로는 귀농·귀촌여성의 농촌 정착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귀농·귀촌을 결정하고 준비하고 이주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겪는 경험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큼. 귀농·귀촌에 대한 지자체의 과잉 지원과 공동체적 농촌문화의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한동안 귀농·귀촌 추세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귀농·귀촌의 부정적 측면은 완화하고 긍정적 측면을 살리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특히 많은 여성들이 귀농·귀촌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남성들만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점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임.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농촌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함.

2 조사 및 분석결과

최근 귀농·귀촌 가구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귀농·귀촌여성 인구 역시 크게 증가 추세를 예측할 수 있음. 현재 귀농·귀촌실태의 성별 통계가 생산되고 있지 않아 가구 규모 외에 여성의 귀농·귀촌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음. 따라서 전국적인 귀농·귀촌 실태는 현재는 가구단위로만 분석 가능함.

● 귀농·귀촌 성별 실태

귀농·귀촌 관련 성별통계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제한적이거나 귀농·귀촌 여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기존의 귀농·귀촌 설문조사 데이터를 구하여 성별로 재분석하였음. 설문조사는 농업인재개발원에서 2011년에 수행한 것으로, 1,084명의 귀농·귀촌 교육 수료생('09년, '10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임. 조사대상 가운데 남성은 892명(82.3%), 여성은 192명(17.7%) 포함되어 있음.

실태조사 성별 분석 결과, 귀농·귀촌을 실행하게 된 결정적 계기로는 남성, 여성 모두 도시보다 농촌생활이 더 좋다는 생각(각각 34.9%, 39.5%)을 가장 많이 택하였음. 두 번째로 택한 선택의 계기가 남성의 경우, 농사를 본격적으로 짓기 위해서(17.2%)였던 반면, 여성은 나와 가족의 건강 때문(21.1%)이었음. 세 번째는 남성, 여성 모두 은퇴 후 여가를 보내기 위해서(각각 13.2%, 14.5%)였음.

귀농·귀촌을 실행하고 있는 응답자 집단의 경우, 57.2%가 가족 전원이 이주하였고, 23.6%는 가장만 혼자 이주, 7.0%는 가장이 먼저 이주한 후 가족이 합류한 경우였음. 나중에 가족이 합류한 비율까지 합하면 가족이주율은 여성 응답자의 69.4%, 남성 응답자의 63.2%에 불과하였음.

귀농·귀촌을 실행하고 있는 응답자들의 귀농·귀촌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64.1%가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남성은 63.3%, 여성은 68.4%로 여성의 만족도가 더 높았음. 귀농·귀촌 교육의 경우, 귀농·귀촌을 실행하고 있는 응답자의 65.3%는 교육을 통해 배운 경험과 지식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고 있음. 남성의 63.8%, 여성의 73.3%가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여 여성의 교육만족도가 더 높았음.

귀농·귀촌 관련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 가운데 귀농·귀촌 실행집단에서 교육과 정보 제공에 대한 요구는 남성이 더 높고 여성은 지역주민과의 융화 지원에 대한 요구가 남성보다 두 배 가량 많았음. 귀농·귀촌의 실행과 정착과정 중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응답 중

28.3%가 영농기반 마련, 25.9%가 사업자금 조달이 애로사항이었고, 편의시설 부족(12.6%), 이웃주민과의 갈등(12.0%), 부족한 소득(8.8%), 과도한 육체노동(7.3%), 일자리 부족(5.1%) 등이 그 뒤를 이었음. 여성의 경우도 사업자금 조달이 27.4%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났으며, 영농기반 마련(19.2%), 과도한 육체노동(16.4%), 편의시설 부족(12.3%), 이웃주민과의 갈등(12.3%), 부족한 소득(6.8%), 일자리 부족(5.5%) 등의 순이었음. 여성의 경우 남성 응답자보다 과도한 육체노동을 애로사항으로 택한 비율이 매우 높았음. 남녀 모두 가족을 동반한 이주율이 70% 아래로 가족 이주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요구됨. 또 여성을 위한 사업자금 지원, 육체노동 부담 완화, 이웃과의 갈등 해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이 요구됨.

● 귀농·귀촌여성의 농촌 생활의 어려움과 정책지원 요구를 파악하고자 심층면담을 진행하였음. 귀농·귀촌여성 면담은 진안군 거주 귀농·귀촌여성 15명과 서천, 홍성 등 전국 각지의 귀농·귀촌여성 15명 등 총 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음. 진안군 현지 연구에서는 귀농·귀촌여성의 전반적 농촌정착 과정과 생활상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기타 지역 거주 귀농·귀촌여성들은 교육, 문화, 창업, 마을개발 등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경험을 중심으로 면담을 하였음. 귀농·귀촌에 대한 다각적 시각을 보기 위해 주민여성 5명, 귀농·귀촌 관련기관 관계자 10명에 대한 면담도 실시하였음. 또한 지자체의 귀농·귀촌지원사업 담당자에 대한 이메일 의견조사도 실시하였음.

● 진안지역 귀농·귀촌여성에 대한 면담을 통해 귀농·귀촌의 동기, 농촌이주 후 정체성 변화, 만족도와 애로점, 경제 및 사회활동 참여양상 등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음. 귀농·귀촌여성들은 남편의 의사, 자신의 일에 대한 회의, 자녀교육 환경, 가족의 행복, 삶의 질, 자연에 대한 관심 등 다양한 이유로 귀농·귀촌을 결정하였음. 귀

농·귀촌 배경에는 농촌이 “인간을 치유”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곳이라는 기대가 있었음. 남편 때문이 아닌 자신에게서 귀농·귀촌의 동기를 찾고자 한다는 점은 여성의 농촌 정착 과정이 주체적으로 펼쳐질 가능성을 보이고 있음.

농촌에서의 자신의 정체성은 “농촌이 아닌 도시에 가까운 사람”, “농촌에 살고 있는 여성”, “반농업인”, “그냥 이사 온 것”, “농촌사람 같지 않은 농촌 사람”, “전원에 사는 사람” 등으로 표현하였음. 귀농·귀촌 시기가 상대적으로 오래된 여성들은 자신을 농업인, 여성농민으로 인식하기도 하였음.

‘자녀’는 귀농·귀촌 여성들에게 중요한 이주의 동기를 제공하고 있음. 감수성을 키워주려 한다든지, 맘껏 뛰어놀게 하고 싶다든지, 학원 등으로 내몰고 싶지 않다든지, 장애로 인한 따돌림을 주고 싶지 않다든지 하는 형태로 양육 부문은 중요한 이주 동기가 되었음. 그들은 자녀 교육에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어머니회, 아버지 모임 등 학교 활동에도 참여하는 가구가 적지 않았음. 조사대상자 대부분은 농촌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것에 긍정적이었음.

귀농·귀촌 여성들에게 일은 농촌에서 생활하고 사회적으로 적응하는 데 주요 기제가 되고 있고, 귀농·귀촌여성들은 일자리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며,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에 참여하고 있었음. 여성들은 농사를 ‘업’ 또는 ‘재미’로 생각하고 있고, 농업 외 다른 일자리에도 종사하고 있음. 농촌에는 여자들이 할 일이 많고, 작은 재능이라도 다 쓸모가 있다고 생각함. 농촌에서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일하지 않고 집에만 있으면, 마을에서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로, 주체가 아닌 타자로 남을 가능성이 큼. 농촌 사회에서 여성들은 일을 통해서야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농촌에서 주체로 설 수 있음. 즉 여성들의 일은 남편의 경제적 보조 수단이나 농촌에서의 생계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농촌에서의 주체성을 확보하고, 타자가 아닌 주체로 호명될 수 있는 기제라 할 수 있음.

귀농·귀촌여성들은 농촌을 ‘간섭이 많은 곳’, ‘말조심을 해야 할 곳’으로 언급했음. 농촌 마을이 지닌 이러한 기본 속성 때문에 귀농·귀촌여성의 정착에는 마을 주민들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토착 주민여성들은 귀농·귀촌여성들에게 어른 공경, 마을행사 참여, 주민과의 교류를 바라고 있는데, 이를 귀농·귀촌여성들은 간섭과 텃세로 받아들이고 있어 이의 간극을 메울 필요성이 큼.

귀농·귀촌여성 대부분은 직장을 포함하여 마을 바깥의 지역 주민과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었음. 학교 모임, 자원활동 모임, 작목반 모임, 귀농인 모임, 각종 결사체 등을 통해 마을 밖의 사회적 세계와 연결되어 있었으며 이렇게 맺어진 사회적 관계는 농촌 정착에 탄력을 주고 있었음. 그러나 기존 농촌 여성조직에의 참여는 저조한 편이며, 마을회의나 귀농인 모임과 같은 공식적인 회의에는 남편이 주로 참여하고 있어 여전히 농촌사회 공식 석상에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드러나기 어려웠음. 기존 여성조직과의 교류, 마을의 공적 담론에 참여를 위한 환경 조성이 요구됨.

귀농·귀촌여성 대부분은 농촌에서의 생활을 평화, 여유, 삶의 질 등 만족스럽고 긍정적으로 표현하였지만, 세상에서 고립되고 즐길 곳이 없고 불편한 곳으로도 말하고 있음. 따라서 농촌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철저한 목표와 계획을 세워야 하며, 농촌의 환경과 주민을 이해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하고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함.

- 전국에 분포한 귀농·귀촌여성 활동 사례조사와 면담을 통해 교육, 문화, 경제, 단체활동 등 여러 분야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귀농·귀촌여성들의 활동 양상 및 정책요구를 살펴보았음.

가. 교육 활동

귀농·귀촌여성들은 귀농·귀촌교육이나 영농교육에 참여하기도 하고 농촌유학사업, 귀농여성 학습활동 등 교육활동을 주최하기도 함. 농촌에 이주하기 전, 사전에 받는 귀농·귀촌교육은 여성에게도 매우 중요함. 귀농·귀촌 전에 “여성을 염두에 둔 교육”, “농촌을 이해하는 교육”이 필요하고, 통합교육과 별도교육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교육은 여성들을 농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인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됨. 특히 귀농·귀촌의 성공에는 배우자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부부교육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부부 우선 선발과 교육편의상의 배려를 강조하고 있음.

사전에 귀농여성인력 키우고…. 통합 교육도 하고 별도 교육도 필요하고…여성을 염두에 둔 교육…대안적인 삶을 살려는 사람 중 여성이 많고…감수성은 여성들이 더 뛰어나요…. 농촌을 이해하는 과정으로서 교육이 필요해요. 겪어보고 생생하게 느끼고…. 그럴 때 다가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데… 접근시켜주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농촌출신이라 교육 필요성이 별로 없었는데, 남편은 귀농을 위해 교육을 많이 받고 준비했어요. 남편 ‘실상사 귀농교육’도 받았고…마지막으로 2007년 6개월과정 부부교육도 같이 받았어요…. 교육은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귀농귀촌교육은 부부교육이 꼭 필요해요. 배우자 지원이 필요해요…단기간이더라도….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부부 선발 우선하던지…14기까지 부부는 3쌍 있었어요…한 기에 보통 20여명…경쟁이 심하고 선발되기 힘들다보니…부부는 합숙이 불편하니 주 1회라든지…편의 고려가 필요해요….

교육이 정착을 1년에서 3년 앞당길 수 있다고 봐요. 좌충우돌 막고…교육받으면서 사람 많이 알게 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농업기술 배우는 것보다 인맥 맺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기술은 현지에서 배우면 되고…한두달 정도 전반적인 것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요…. 이주 후에 현지에서 실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교육받으려면 시까지 가야 하니 가기 전에 필요한

교육 받고 가면 좋죠….

지자체 귀농학교가 정착에 도움이 되었어요. 농촌문화, 사회이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적응에 도움을 받았어요. 농촌사회 이해 못하면 정착에 어려움이 있어요. 귀농인들 보면 그게 가장 안돼요.

농촌이주 후에도 농촌에서 기여할 수 있는 역할과 일을 찾기 위해서 교육에 참여하고 있음. 장류 사업에 성공한 한 여성은 관련 교육을 많이 배웠고 창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함.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기술교육으로 큰 도움을 주지만, 주민들이 주로 활동하는 생활개선회가 폐쇄적으로 교육기회를 독점하는 데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음. 또 귀농여성들은 교육받을 시간을 내기 어렵고, 또 개인별로 필요한 교육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기초교육 수준의 교육이 반복됨으로써 교육만족도가 낮으며, 보육 문제가 해결되어야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등의 불만과 애로가 있음.

막연히 시골사는 것보다 역할에 고민이 되어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도시는 인재가 많고 시골에는 노인들이 많아 일할 사람이 부족해요. 시골에 도움이 될만한 부분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계획은 많이 세웠으나 예상대로 안되네요. 마을 일에 기여하면서 정착하고 싶는데….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고창군 귀농·귀촌학교, 농촌개발대학, 우수 농촌관광경영대, 농촌체험아카데미, 전통음식학교, 우리음식 해설사과정 등… 전통음식 관련 교육을 많이 배워 사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농업기술센터에 여성모임(생활개선회)이 있는데 교육이 있으면 자기들끼리 미리 다 등록해버려요. 귀농·귀촌인이 들어가기 어려워요.

생활개선회는 폐쇄적이예요… 그들만의 집단이라 참여하기 어렵죠. 자기들끼리 딱 신청 마감하고 외부인이 들어갈 기회를 안 줘요.

(농산물 판매하려면)홈피 구동능력도 필요하고 … SNS 홍보도 필요한데… 여

성들은 교육받을 시간이 안돼요. 집에 와서 일대일로 해주면 좋겠어요. 교육을 갔는데 몇 년을 가도 초급교육 수준만 하는 거예요…. 초급자가 오니 초급에 맞춘다는 거죠. 중급 가도 여전히 초급교육하고…. 몇 십명 모아 놓고 수준별 교육하기 어렵죠

여성들은 보육문제가 해결되어야 참여할 수 있어요.

농사를 하는 의미와 농업인으로서의 역할과 자부심,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에 대한 요구도 있음. “개념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다르다”고 함. “그러한 교육을 거치면, 내가 알면, 진짜 좋은 먹거리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람을 안속이고 건강한 서로의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변화가 생기므로, 좋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임.

제일 중요한 건 교육인 것 같아요. 농민들이 그런 기회가 너무 없었어요. 어딜 가도 뭐 기술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잠깐 듣는 교육이지, 내가 위치가 어디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농사짓고, 내가 농사짓는 게 그냥 밥벌이로 농사짓는 게 아니라, 농촌에 대한 의미 있잖아요, 농촌에 대한 중요한 개념들을 가지고 농사 지으면 다르잖아요. 시골 농촌이라는 게, 단순히 먹거리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경관보존의 그런 것도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환경을 살리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의 그러한 농촌이 가진 그런 장점을 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알고 내가 농사를 지으면, 단순히 내가 먹고살고 내 자식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떠나서 진짜 뭐 생태라든가 환경, 나라에 대한,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분들까지도 다 내가 하고 있구나, 그걸 알고 농사지으면 나는 그건 아주 큰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교육들을 거치면, 내가 알면, 진짜 좋은 먹거리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람을 안 속이고 건강한 서로의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의 과정으로 교육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육들, 좋은 강사님들 모시고 와서 듣거나, 그런 자리가 있으면 특히 더 가서 또 참여할 수 있게 해드리거나, 그러고 있어요.

귀농·귀촌여성들은 교육의 대상일 뿐 아니라 교육의 주체이기도 함.

농촌에서 마을주민, 귀농·귀촌여성, 도시 아이들을 위한 교육활동을 하기도 함. 마을주민을 위한 문해교실을 운영하기도 하고, 귀농여성들끼리 여성귀농인들의 문제해결을 돕고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귀농학교를 운영하기도 함. 여성귀농학교를 통해 유대감 형성, 상호 위안과 치유, 농사법 학습 등 여성이 관심을 가진 다양한 분야의 학습활동을 함께 할 수 있었고, 학습과 휴식을 위해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도 병행했다고 함.

여성귀농학교는 전국귀농운동본부에 제안해서 4번 했어요. 여성들의 욕구는 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들끼리 해야 할 말이 있어요…. 부부귀농자도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경우…. 그건 부부간에 해결이 안돼요. 그걸 도우려 학교를 운영했고 3박4일 합숙하는 것이 좋았어요. 유대감이 형성되고 서로 위안을 많이 받았어요. 귀농 선배, 솔로 귀농, 동료하고 같이 귀농한 여성, 동네 이장을 맡은 여성, 부부귀농, 문화활동가, 대안교육활동가 등이 참여했고 강의, 토론, 집단상담도 하고…그 과정에서 상당한 치유가 일어났을 거예요. 몸 풀기, 강의, 노작도 하고 경험담…. 농사법…. 여성이 관심을 가진 다양한 분야의 대화를 하고….강사를 전부 여성으로 했어요…. 본부에서 홍보하고 모집해주고 애들 돌봐주는 사람 따로 두고…. 귀농을 한 이후는 실제로는 시간이 없어요. 일에서 벗어나기 힘들죠. 교육하면 몇년만의 휴가라고 좋아해요. 귀농이 좋아서 오지만 오래되면 몸과 마음이 지치는 거죠….

마을에 문해교실 만들어 2008년부터 주 3회 교육 하고 있어요.

나. 문화 활동

귀농·귀촌여성들은 농촌사회에 부족한 문화공간을 만들고 활동을 함께 하고 있음. 도시에서 살던 여성들에게 농촌의 문화공간 부재는 매우 큰 불만임. 또래 여성들을 만나기 힘들고, 모일만한 곳도 마땅치 않아 외로움을 달래기 힘들다고 함. “또래가 없고”, “갈 데도 없고”, “아이들 데리고 갈 데도 없고” 등의 문제는 젊은 귀농·귀촌여성들이 겪는 공통의 문제일 것임. 작은 문화공간이라도 귀농·귀촌여성들에게는 매우 큰 의미

가 있으며, 농촌생활의 외로움과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됨. 이러한 문화공간 마련과 활동 역시 귀농·귀촌여성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음.

학연, 지연을 중시하는 지역사회에서 외롭고 또래가 없어요. 면허, 차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마음을 털어 놓을 자리가 없어요. 도서관 하면서 젊은 엄마 만나니까 사는 맛이 나요...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곳이 있다면 여기를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예요. 첫 애가 4살인데 어린이집이 멀고... 너무 외지면 버스 배치가 어렵고... 그나마 도서관이 있어서 육아모임도 하고...그런 거 없으면 보낼 데도 없고 데리고 갈 데도 없고...

충남 서천의 '여우네도서관'은 귀농·귀촌여성들이 문화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문화활동을 주관하고 있는 사례임. 도서관대표는 대전에서 직장을 다니다 서천에 귀농한 후, 아이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느껴 농촌에 작은 도서관을 세웠다고 함. 100%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고 군 건물을 활용하고 있음. 여우네도서관은 아이들 글쓰기 모임, 식생활교육프로그램, 책 놀이 프로그램, 어른 문학공부 모임, 지역주민 문화예술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음. 일부 프로그램은 군에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고, 매주 월요일 저녁 엄마들이 모여 문학공부 모임도 하고 있음. 문화예술프로그램은 문화관광광부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하게 되었으며, 여우네 풍물단을 운영하고 가을 문화제를 기획하고 있음. 올해부터 도 차원에서 작은 도서관을 공모하여 연 1회 도서관입비 400만원을 지원받고 있고, 서천군에 'book start program'을 제안해서 4년째 운영을 주관하고 있음. 관내를 다니며 태어난 아가들한테 책 꾸러미를 선물하고, 먼 가방에 책, 독서가이드북 등을 넣어 선물하여 책과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도서관 책모임에 참여하는 엄마들과 지역에서 자원활동가를 15명 정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을 방문하여 부모교육도 하고 있음. 도서관 대표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점"을 만들고, "주민들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원하지만, 자원활동으

로 이끌어가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말함.

처음 기증받은 책 300 여권으로 시작하여 월 10 여권이상 꾸준히 구입하고 있어요. 운영위원회가 6명(남 2, 여 4)인데, 원 주민, 귀농·귀촌 주민, 인근 마을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을 어르신을 고문단으로 모시고 있어요. 인근 마을 어린이들이 함께 이용하고, 어른들도 많이 이용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거점이 되고 있어요. 모이면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해지죠. 주민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낼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래요. 자원활동 중심 운영이라 재정적 어려움이 있고 지속가능성에 어려움이 있어요. 인건비(상근 1인) 지원이 필요해요….

다. 취업 및 창업 활동

귀농·귀촌여성들은 대부분 농촌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음. 농사만으로는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여자들이 “나름대로”, “가진 재능 가지고 이일 저일”을 하고 있음. 농사 외의 일자리에 취업을 원하며, 교육이나 복지, 행정분야의 임시 일자리가 있는 편임. 농촌에도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의 종류가 많은데, 일자리는 “알음알음”, “인맥중심”으로 소개 받는 편임. 농촌에서 필요한 일, 재능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일,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일을 찾고 있고, 취업을 위해 평생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의 노력도 하고 있음.

농촌에서 어려운 점은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크고, 자녀교육문제…교통문제…농촌에서 빚 천만원만 있어도 헤어내기 어렵다고 해요. 농사가 계속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농기계 구입도 해야 하고…농촌이 돈이 적게 든다기보다 덜 쓰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절약하는 것이지…교통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먼 단위에서 시내 가려면 만원 정도 들어요. 버스비가 비싸요.

경제문제…농사지으면서 답이 안나와요. 농비가 많이 들어요. 하나하나 다 사야 해요. 계속 돈 들어가는데 나오는 건 찔끔찔끔…어쩔 수 없이 다른 데 일을 나가게 되고, 안 쓰고 사는 게 한계가 있어요. 차 하나 있고 기름 보일러 때면

도시와 차이 없어요. 지출은 뻔히 보이는데 수입이 안되면 빚으로 사는 거죠.

귀농을 하는 경우에, 두 사람이 다 전업적으로 농업일만 해갖고는 사실은 힘들지 않나. 왜냐면 논농사 중심의 지역에서는 자금의 회전주기가 1년이잖아요. 그니까 사실은 계속 투자만, 계속 비용만 들어가다가 가을이 돼서야 비용이 나오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봄에 여름에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귀농을 하는 경우에, 여자들은 농업만 전업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직업이 필요하지 않나. 귀농하신 분들 경우 이렇게 여성농민센터 직원이라든가, 학교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방과후 교사라든가, 특기적성 교사라든가, 아니면 또 급식실 일이라든가, 행정실 일이라든가 그런 일들. 아니면 면 사무소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아니면은, 어쨌든 불안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들어가야 하는 기본 생활비는 벌어야 해요.... 둘 다 농사하면 생활이 안되고...농사해서 생활비 나오기 어려워요...수확해야 돈이 되니...여자들도 나름대로 일 해요.... 뜬방 봉사도 하고...가진 재능 가지고 이 일 저 일 해요. 강의도 하고...단체에서 일 많이 해요.... 매장 운영하면서 생산되는 물건도 팔아 주고, 옷도 기부받아 팔고...일자리는 알음알음해서 소개받고...농촌은 다 알음알음으로 해요...

농촌 여성들은 농사 외에 일하고 싶어 해요. 수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 정규직 일도 선호해요... 개인이 알아봐서 방과후 보조행정인력, 방과후 강사 많이 하고 나이드신 분들은 요양보호사 하세요.... 한시적인 일들을 많이 하죠. 대학평생교육원에서 교육받고 자격증도 많이 취득하여 갖고 있어요.

일자리는 사회복지쪽이 많아요...요양보호사, 다문화가정지도사 같은...그리고 커뮤니티비즈니스.... 교육청쪽 일도 많고.... 상담사, 방과후 관련...영농법인 사무직도 있고.... 재능을 발휘해서 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기위해서 자격증 많이 따두고 있어요. 일은 최저 120-150만원은 줘야 할 수 있어요. 농촌에서 필요한 일을 만들어서 적정 임금을 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해설사하고...지리산둘레길 가이드... 농촌에는 자잘한 일이 많아요.
시에서 사람 쓰는 일... 귀농, 관광에 대한 아이디어 내서 상도 여러 차례 받
았고...시골은 인맥중심 취업이 많아요.

수입보다 보람이 중요해요. 마을 관련된 일, 청소년 멘토 같은... 시간에 얽매
이기보다 자유로운 일... 농사보다 하면서 보람 찾을 수 있는...

귀농·귀촌여성들은 식품가공업, 숙박업 창업에 관심이 많음. 농산물을
가공하는 단계까지는 하는데, 판로를 찾는 데 어려움이 큰 편임. “여성들
의 재능을 농촌에서 꽃 피울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주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농림부 창업기준이 어느 정도 규모를 요구해서 소규모 사업을 많
이 하는 여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함. 귀농·귀촌여성들은 정부 지
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많고 실제 운영하기도 하는데 자
립까지 가기가 어렵다고 함. 여성들이 창업을 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기관이 부족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기도 어렵다고 함.

여성들은 재능이 있는데 그걸 농촌에서 꽃 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면... 가공
같은 거에 여자들 관심이 많아요. 재료 보면 아까워서 많은 걸 상품으로 만들
어봤어요. 그 다음은 판로가 문제예요. 팔 수 없으면 답이 안 나와요. 판다는
걸 도와주는 게 쉽지 않죠.

농림부 창업 기준 자체가 규모를 갖출 것을 요구해서 여성에게 불리해요. 호
소, 장아찌 일일이 허가받아야 하고...인터넷에 그냥 올리면 무허가고... 블로
그에도 올리려면 허가 받아야... 농가는 소규모 회원사업을 허용해야...지역직
판장이 서울에도 있어야... 포장시설 공동 사용 그런 거 해주면서...자부담 갖
춰라 하니까 자부담하다가 빚져요.

장류 사업을 하다가 도움이 필요해서 문의했더니, 연 매출이 얼마냐고... 매출
이 기준이하면 상담도 못해준다고... 왜 상담도 안해주는지... 나오면서 내가
연고가 없어서 그런가...너무 서운했어요.

창업은 사회적기업으로 많이 하는데 자립하기 어려워서 지원받는 동안만 운영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업들은 잘 따요. 비슷한 걸로 또 신청해서 운영하는 식으로... 가공품 생산을 해도 유통, 판매는 허가받기 어려워서...

협동조합에 관심 있어요... 마음 맞는 사람끼리 결성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하고 싶어요... 장류나 효소에 관심 있는데, 잘 돼서 정착했으면 좋겠어요. 귀촌해서 일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는데 유일한 정보기관인 일자리센터는 한계가 많아요. 정보가 부족해요.

서울 지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펜션 임대하는 일 하고 싶어요. 일자리센터가 있는데 다양한 정보가 부족해요.

라. 마을개발 활동

귀농·귀촌여성들은 체험마을 운영에 참여하거나 마을사무장으로 일하는 등 마을개발 활동에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음. 체험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귀농인들이 기술, 지식, 네트워크망 등 농촌에 부족한 자산을 가지고 기여할 수 있게 되고, 여성들은 꾸러미사업이나 음식 체험과 같이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체험거리를 개발”해서 연계를 시키면서 역할을 찾고 마을 일에 참여를 확대해가고 있음.

귀농교육 중에 마을사무장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남원에 지원해서 마을사무장으로 일했어요.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고 농림부 사업이에요. 방문객 관리, 행정업무하고 120만원 정도 받았어요. 노인들이 이런 일 못하니... 엄마는 농촌에서 120이면 농사 50마지기 짓는 것과 같다고 하셨어요... 지리산둘레길 시작마을이 되면서 체험마을이 잘 되었고 돈이 잘 벌렸어요. 상도 받고 마을 빛도 갚고... 근데 마을주민들 갈등이 심해지면서 연말에 위원장이 쫓겨났어요...그거 보고 나도 그만 뒀어요.

마을사무장도 여성들이 많이 해요...마을회관에 여성사무장 두고 인건비 지원하면...이장 외에 마을사무장 두도록 하고 여성을 안배했으면 좋겠어요.

귀농인들이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도시에서 내가 알던 인맥들. 그런 거 잘 유지해서 가져오면 판로들이 다 되니까. 굉장히 도움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던 도시에서의 자산들 있잖아요, 인맥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잘 활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도시에서는 요가 배워온 사람들이 여기서 요가 가르치면 되거든요. 영어 잘하면 영어도 가르쳐도 되고. 그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여기서 잘 풀면 진짜 소중한 거죠 농촌에서는 잘 없는 거니까. 인맥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것도 팔지만, 주민들것도 받아서 내가 팔아주고, 이러면 굉장히 인정받고 좋은 거죠. 그러면 좋은 유통이 또 하나 생겨나는 거거든요. 마을에 그런 유통이 자리 잡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망도 잘 형성해서 오면 마을에 완전히 플러스죠.

체험마을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여성의 역할들이 조금 더 대두가 되는 것 같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뭐 꾸러미라든가, 여성이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꾸러미는 거의 다 여성들이 참여해서 하는 거니까. 왜냐면 반찬 만들고 제철 채소내고 하는 게 여성들이 주로 다 사는 부분 이니까. 그렇게 조금 조금씩 찾아 나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성들이 또 뭐 할 수 있는 게 여기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체험거리로 다가갈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떡 만들기든, 고추장 만들기를 하든, 음식 체험을 하든, 두부 만들기를 하든, 여성들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체험거리를 개발하고...

마. 단체 활동

단체활동 참여는 귀농·귀촌여성의 농촌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들은 여성농업인센터나 여성농민회 같은 곳을 “마실방”, “모이는 장소”로 활용하면서 정보와 교육도 제공받고 일자리를 소개받기도 함. 여성들이 모여서 고민을 나누고 해결책을 찾고, 농민으로서의 역량도 개발하는 등 농촌의 여성조직은 “뭔가 얻어갈 수 있는 곳”, “여성농민으로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기능하고 있음. 그리고 귀농·귀촌한 여성들이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역할도 하고 있었음.

여자하고 애들만 내려 온 집도 많아요. 남편은 도시에서 직장 다니고...보통은 여자가 안 오려 한데 여기는 반대예요.... 귀농귀촌 가구가 많아 어려움은 없어요. 먼저 내려오신 분들이 모임도 하고 도움이 많이 돼요. 귀농귀촌운동본부에는 남자들이 위주이고 여농인센터는 소개받고 와요. 회원 가입하면 소식, 정보, 교육 등 제공받고...직영 매장이 있는데 마실방처럼 활용하고 있어요.

처음엔 연고 없이 와서 우울증 오다시피 했어요. 전업주부로 있다가 애들 키우고 나니 일이 많이 하고 싶었어요. 사람이 그리웠죠. 처음엔 봉사부터 했어요. 학교에서 다른 학부모가 같이 하자고 해서 적십자에서 반찬봉사활동 했어요...그러다가 여성농업인센터 생길 때 운영위원으로 가입해서 쪽 활동하고 있어요. 제가 손 들고 열른 가입했어요. 정식 직원으로는 3년 전부터...돈도 별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재미있어요. 여성농업인센터에서 학부모교육, 자녀교육, 재능발휘교육 등 많이 받았어요. 남편은 싫어했죠...사람도 만나고... 수다로 속풀이도 하고 집안문제도 풀고.... 귀농귀촌여성들은 여기를 모이는 장소로 생각해요.

제가 여성농민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처음 시집와서는 바깥 활동도 많이 안했고, 육아에 많이 치중을 했었는데.... 남자들은 차 몰고 나가면 술도 한잔 하고 기술도 배우러 가고 교육도 다니고,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얻고 와요. 안사람들은 그러다보니 정보에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참 갑갑하더라구요.... 여성농민회에서는 정보가 많이 오니까, 그런 정보도 전달하고, 수다를 떨어도 여기 와서 얘기하면 수다 떠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얻어갈 수 있는 곳.... 회원들이 교육도 하고, 견학도 가고, 아이들교육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고부갈등도 있으면 그런 얘기도 좀 하고, 남편 흥도 좀 보면서 그에 대한 스트레스도 풀고, 그런 모임을 하면서 굉장히 좋았어요.

여성 농민회 같은 경우는 귀농하신 분들이 이제 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거든요. 저희 여기 꾸러미에서도 귀농하신 분들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고, 그런 것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 귀농·귀촌 지원기관 관계자들은 귀농·귀촌여성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부부교육, 가족교육, 여성에게 필요한 교육, 취업과 창업을 위한 교육, 멘토링, 여성참여 사업에 대한 지원, 정보제공 서비스, 농촌여성조직의 귀농·귀촌여성 지원사업, 귀농·귀촌여성을 위한 중간조직 활성화, 귀농·귀촌여성 성공사례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음.

지자체의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담당 공무원들은 귀농·귀촌여성의 어려움으로 소득과 일자리 부족, 지역주민과의 갈등, 남편 의존성 증가로 인한 부부 갈등, 외로움, 자녀양육 시설 부족, 생활환경 불편 등을 지적함. 이러한 문제 해결과 귀농·귀촌여성 정착을 위해 여성을 위한 일자리 발굴과 창업 지원, 지역주민과의 화합프로그램, 여성단체 가입과 활동, 가족단위 이주 장려, 가족 정착 지원, 귀농여성 모임 활성화, 귀농·귀촌여성 교육 지원, 보육과 자녀 교육 지원 등의 정책을 제안하였음.

3 정책 현황

귀농·귀촌의 증가와 함께 귀농·귀촌여성 역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귀농·귀촌 정책에 여성에 대한 관심은 거의 보이지 않음. 귀농·귀촌 담당자나 관련 연구자들 역시 귀농·귀촌여성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이 미치지 못하고 있음. 귀농·귀촌여성들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면서, 문화적 충격을 경험하고 있음. 농촌의 남성중심적 문화, 공동체문화, 여성간의 세대차에 직면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음. 농촌여성의 권한과 지위, 생활환경이 도시여성이 누리던 삶과 차이가 있어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음. 귀농·귀촌 현상이 농촌과 개인 발전에 도움이 되어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을 모두 지원하는 정책이 되어야 함. 귀농·귀촌여성이 겪는 어려움과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지

원하는 정책이 개발되어야 함.

농림수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 지원을 위해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을 제정하고, 5년 단위로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1, 2차 기본계획을 통해 여성농업인에게 농어업확인서 발급, 농어업 경영체 등록시 배우자 등록 제도, 여성농업인 교육기회 확대, 농가도우미 및 영농·가사 도우미 지원사업, 결혼이민여성의 농업인력 육성 및 다문화가족의 농어촌 정착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였음. ‘제3차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11~’15)은 여성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 교육 및 창업 지원, 귀농(귀촌)여성, 결혼이민여성 등 신규 유입인력의 정착 지원, 양육비 지원 확대 및 보육여건 개선 등 여성농업인의 권익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있음. ‘제3차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에 귀농·귀촌여성 및 결혼이민여성 등 신규 유입 인력에 필요한 정착 지원과 이들을 후계 여성농어업인력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제시되면서, 사업기간 동안 총 2,800명의 귀농 및 결혼이민여성 등 신규 유입인력의 정착을 위한 멘토를 육성하는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을 하므로, 귀농여성 정책은 귀농 초기의 여성을 지원하는 데 국한하고 있음.

귀농·귀촌에 대한 본격적인 대책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가 ‘귀농·귀촌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이는 거의 남성을 전제로 한 정책으로 여성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고 있지 못함. 현재 귀농·귀촌 정책과 사업 가운데 여성의 참여 및 수혜 현황을 알 수 있는 성별 통계도 거의 구축되어 있지 않아, 귀농·귀촌여성의 정책 수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움. 따라서 귀농·귀촌 지원 정책에서 여성 참여 현황을 알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일부에 그칠 수밖에 없음.

일부 파악할 수 있는 정부의 귀농·귀촌교육의 여성 참여율은 낮은 편임. 농업인재개발원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2011년 귀농·귀촌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은 17개 교육과정으로, 총 765명이 수료하였으며, 그 중 여성의 비율은 25.2%(193명)인 것으로 나타남. 농촌진흥청의 2012년도 귀농·귀촌교육 참여자도 탈북자 귀촌교육과정 외에는 여성의 참여가 매우 낮

음. 한국농수산대학의 귀농·귀촌교육에는 2011년에는 85명 중 여성이 23명(27.1%), 2012년에는 90명 중 여성이 15명(16.7%) 수료하였음.

4 정책제언

귀농·귀촌여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남성들만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점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임.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농촌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성중심적 ‘귀농·귀촌종합대책’에 다양한 귀농·귀촌여성 대책들을 개발하여 포함하도록 해야 함. 또한 ‘여성농업인기본계획’에도 귀농여성을 위한 정책을 보강해야 할 것임.

제안1) 성 인지적 귀농·귀촌 정책

현재의 귀농·귀촌정책은 남성을 중심에 두고 여성에 대한 고려는 거의 포함하지 않고 있음. 농림수산식품부의 귀농·귀촌정책 브랜드는 ‘Mr. 귀농·귀촌’이고, 귀농·귀촌 관련한 통계는 가구단위로 조사되며 성별 분리되지 않고 있어 귀농·귀촌여성의 실태조차 파악하기 어려움. 앞으로는 귀농·귀촌정책과 여성농업인정책에서 귀농·귀촌여성을 지원하는 정책을 개발하여 포함해야 할 것임. 정부가 지원하는 포럼과 캠페인에서도 귀농·귀촌여성을 강조하고, 귀농·귀촌여성의 성공 사례를 부각하고 확산하는 등의 홍보가 필요함.

- ‘귀농·귀촌종합대책’에 여성을 위한 정책 개발
-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귀농여성 지원정책 개발
- 귀농·귀촌 브랜드로 여성 부각: Ms(Miss & Mrs.) 귀농·귀촌’
- ‘귀농·귀촌실태조사’ 시 성별 귀농·귀촌 통계 생산

- ‘여성농업인실태조사’ 시 귀농여성 실태 통계 생산
- 귀농·귀촌여성 성공 사례 홍보
- 귀농·귀촌 페스티벌, 포럼에 여성 이슈 포함
- 농촌여성, 귀농·귀촌여성정책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지원 제고 및 농림수산식품부와와의 협력 강화
- 지자체의 조례 및 관련 지침에 귀농·귀촌여성 지원내용 포함

제안2) 귀농·귀촌여성을 위한 상담과 정보 제공

귀농·귀촌여성들은 현지에 이주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가 매우 힘들다고 말함. 여성들이 필요한 생활 정보, 일자리 및 교육 정보, 사업 지원에 관한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취약하여 불편을 크게 느끼고 있음. 중앙의 귀농·귀촌정보 사이트에서도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거의 제공되고 있지 않으며, 지자체에서의 정보서비스도 취약함. 귀농·귀촌여성을 위한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큼.

- 귀농·귀촌종합정보센터 사이트의 여성 대상 정보 강화
- 지자체의 귀농·귀촌관련 기관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의 정보 제공 서비스 강화
- 귀농·귀촌지원 민간 및 공공 기구에 여성 상담과 정보 매뉴얼 제공
- 부녀회장에게 귀농·귀촌여성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업무 부여
- 지역 여성단체의 귀농·귀촌여성 상담 기능 지원

제안3) 귀농·귀촌여성의 적응 및 역량강화 교육

귀농·귀촌여성들은 귀농·귀촌교육 참여율이 매우 낮음. 가족이주의 경우 남편만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아, 여성들의 귀농·귀촌 준비는 취약함. 귀농·귀촌여성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하며, 혼자 또는 부부가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귀농·귀촌여성들에게 필요한 사전교육은 “농업과 친근해질 수 있는 기초영농교육”, “농

촌에 가서 살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교육”, “농촌생활에 필요한 교육”, “농촌문화를 이해하는 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또한 농촌 일자리에 취업준비를 위한 교육, 창업준비 교육, 지역사회 개발 및 봉사활동을 위한 교육 등 여성들이 농촌에 가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일을 준비하는 교육도 필요함. 교육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남녀 통합교육과 여성들이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특화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함.

- 정부 지원 귀농·귀촌 교육에 여성 참여 할당
- 귀농·귀촌여성 맞춤형교육 실시
- 귀농·귀촌여성 농촌 이해 및 생활교육
- 귀농·귀촌여성 취업과 창업준비 교육
- 귀농·귀촌여성 지역개발역량 강화 교육
- 귀농·귀촌여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 지자체에서 귀농·귀촌여성을 위한 현지 적응교육 제공
- 민간단체의 귀농·귀촌여성 교육사업 지원

제안4) 여성일자리 발굴 및 취업 연계

농촌에는 복지와 교육서비스 분야 일자리, 행정지원 분야 일자리 등 도시에서 이주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음. 현재는 이러한 일자리로의 연계가 “알음알음”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군청이나 귀농·귀촌센터, 여성관련 시설에서 여성 일자리를 발굴하고, 정보 제공 및 취업연계 서비스를 강화해야 함. 귀농·귀촌여성이 가진 재능을 활용하기 위해 재능 DB를 구축하여 지자체와 농촌에 필요한 다양한 일자리로 연계해야 함.

- 여성 일자리 정보 제공 기능 강화
- 귀농·귀촌여성 재능뱅크 구축 및 활용사업 개발
- 농촌형 사회서비스 여성일자리 발굴 및 취업 연계
- 마을개발사업의 마을사무장, 간사에 여성 채용 확대

제안5) 귀농·귀촌여성 창업 지원

귀농·귀촌여성들은 농업 외의 식품가공업, 관광숙박업 분야 창업에 대한 관심이 많음. 그러나 소규모 창업이 많아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있고, 가공식품의 유통, 판매에서 취약한 편임. 따라서 여성들이 선호하는 창업분야에 대한 전문적 컨설팅과 유통, 판매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 필요함. 또한 여성들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귀농·귀촌인을 위한 농업 창업자금의 일정 비율을 여성에 할당
- 농업기술센터에 귀농·귀촌여성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귀농·귀촌여성 창업 유망분야 발굴 및 사업 컨설팅 제공
- 로컬푸드 유통, 판매 지원
- 귀농·귀촌여성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육성
- 농업 외 분야 창업에 대한 자금 지원

제안6) 새일센터 서비스의 농촌 확장

농촌지역에 원 주민인 고령여성 외에 귀농·귀촌여성과 결혼이민여성이 증가하고 있어 현재 도시지역 여성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새일센터 서비스를 농촌지역에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농촌지역에서 취·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상담, 훈련, 취업과 창업 지원, 일자리 발굴 등 여성을 위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형 새일센터를 운영하거나 현재 운영 중인 새일센터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농촌지역에 확장할 필요가 있음.

- 농촌형 새일센터 지정
- 새일센터 서비스의 농촌 확장, 방문 순회 상담서비스 제공
- 귀농·귀촌여성 유망직종 훈련
- 귀농·귀촌여성을 취업설계사로 양성

제안7) 귀농·귀촌 가족의 적응 지원

귀농·귀촌가구의 가족단위 이주율이 낮은 편임. 가족단위 이주율 제고를 위해서 귀농·귀촌하기 전에 가족이 함께 교육을 받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 필요함. 귀농·귀촌의 성공을 위해서는 배우자교육이 반드시 필요함. 배우자가 귀농·귀촌 하고 싶은 “동기를 부여”하고, 농촌에서의 역할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교육이 필요하고 이는 농촌 정착 성공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임. 귀농·귀촌에 부부 중 한 사람이 선발되는 경우, 배우자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부부가 모두 교육을 받을 경우 혜택을 주는 등의 방안 마련이 요구됨. 부부 간의 역할 분담을 논하는 등 부부교육프로그램과 아이들도 참여시키는 가족교육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함. 또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보육과 교육서비스도 강화해야 함.

- 귀농·귀촌 사전 준비교육에 배우자 동반 참여 권장, 가산점 부여
- 부부교육 및 가족교육 프로그램 개발
- 이주 후 귀농·귀촌가족을 대상으로 한 지자체 교육과 상담 실시
- 보육시설 확충 및 정비, 방과후 교육 등의 지원

제안8) 귀농·귀촌여성 네트워크 지원

귀농·귀촌여성들이 서로 도울 수 있도록 자조모임과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농촌에서 여성단체 활동에 참여할 경우 정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귀농·귀촌여성 모임이나 기존 여성조직을 활성화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함. 귀농·귀촌여성들이 기존 농촌여성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기존 여성조직에서 귀농·귀촌여성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귀농·귀촌여성이 정착할 때까지 계속 멘토링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므로, 귀농·귀촌여성을 지원하는 중간조직을 활성화해야 함. 귀농·귀촌협의회에 여성분과를 설치하도록 하여, 귀농·

귀촌여성 지원사업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귀농·귀촌여성 모임 및 단체 조직과 운영 지원
- 귀농·귀촌협회의 여성조직 및 여성사업 운영 지원
- 기존 농촌여성조직(생활개선회, 농협주부대학, 여성농민회, 여성농업인단체 등)의 귀농·귀촌여성 사업 운영 지원
- 귀농·귀촌여성 멘토링 사업 운영
- 귀농·귀촌여성 멘토링을 위한 여성코디네이터 양성

제안9) 주민여성과의 교류와 화합 프로그램

귀농·귀촌여성들의 농촌 정착의 가장 큰 장애 중 하나는 지역주민 여성들과의 갈등문제임. 이주 전에 농촌사회 문화 이해교육을 받을 필요가 크고, 마을주민들에 대한 귀농·귀촌인 이해교육도 필요함. 또 마을주민 여성과 귀농·귀촌여성이 함께 화합할 수 있는 행사와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농촌과 도시문화 이해교육
- 귀농·귀촌자와 마을 주민간 갈등해소 화합프로그램
- 귀농·귀촌여성과 지역여성 간 동아리활동 지원
- 부녀회, 여성농업인단체, 생활개선회 등 농촌 여성지도자 대상 귀농·귀촌여성 이해교육

제안10) 문화, 보건 서비스 강화

농촌지역은 문화 시설이 부족하여 여가 활용이 어렵고, 보건의료 서비스가 취약하여 불편함이 큼. 문화활동을 즐기기 위해서는 시나 읍으로 나가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의 면 지역에 작은 문화공간을 마련하고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귀농·귀촌여성들이 농촌에서 이러한 문화사업의 주체로 활동하기도 함. 지자체가 이러한 문화공간과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하여 농촌의 보

건서비스 취약을 보완해야 할 것임. 귀농·귀촌여성이 우울증을 앓는 경우가 많다고 하므로, 정신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 강화도 요구됨.

- 농촌지역에 작은 문화공간 시설과 운영비 지원
- 보건소의 여성 의료서비스 강화
- 정신 상담과 우울증 치료 프로그램 강화

5 기대효과

- 귀농·귀촌여성과 가족의 농촌 정착
- 귀농·귀촌 여성인적자원 활용
- 농촌사회의 경제적, 문화적 발전에 귀농·귀촌여성의 기여 증대

주관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

관계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과,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